〈표〉 인도 수은 신용한도(Line of Credit) 지원조건

구 분	이자율	대출기간(년)
HIPC(고채무빈국)	1.75% (고정)	20
LIHD(저소득 및 고채무국)	LIBOR+0.5% (변동)	15
MIHD(중소득 및 고채무국)	LIBOR+0.5% (변동)	12
MILD(중소득 및 저채무국)	LIBOR+0.5% (변동)	8-10

에티오피아에 6,500만 달러, 5월에는 ECOWAS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7]에 2억 5,000만 달러, 7월에는 앙골라에 1,000만 달러의 신용한도를 설정하였다.

아프리카에 지원되는 신용한도를 통해 에너지, 통신, 교통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도 기업은 계약금액의 80%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상기표와 같다.

인도 수출기업들은 인도수은의 아프리카에 대한 공격적인 자금지원을 시장확대의 기회로 보고 있으나, 아프리카에 채무탕감을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6년 6월 G-8 재무장관 회의에서 HIPC 등 저소득국가에 대한 채무탕감 이행방안을 논의하던 서방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공격적 수출신용공여가 채무탕감으로 호전된 저소득국가들의 채무상황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임승차(Free Riding)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조 은 진】

◈ EDC, Foreign Exchange Facility Guarantee 제도 도입

EDC는 2006년 초부터 자국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환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Foreign Exchange Facility Guarantee(FXG)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FXG는 수출기업이 환위험 제거를 위해 금융기관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통상 계약금액의 15%)를 대신하여 EDC가 금융기관에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FXG는 100% 취소불능 무조건부 지급보증(Irrevocable and Unconditional Guarantee)조건이며, 수출기업에는 별도의 담보를 징구하지 않는다. 수출기업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자에게 우선 청구하고, 수출자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EDC에 대지급을 청구하게 된다. FXG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보증한도와 보증료율은 수출기업의 신용도 및 환위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수출자는 선물환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담보제공의무가 면

7)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 베냉, 나이지리아, 카보베르데, 잠비아, 라이베리아 등 1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

제됨에 따라 추가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위험 제거수단 확보에 따라 수출여력이 증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금융기관은 선물환계약에 따른 위험이 EDC에 100% 전가되므로, 수출기업에 대한 여타 금융지원 여력이 증대된다.

앞으로 EDC는 환위험 제거 필요성이 크지만 담보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동 제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자국 금융기관과 공동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 선 우, 뉴욕사무소】

◈ JBIC, 방글라데시에 최빈국 엔차관 지원제도 첫 적용

지난 6월 JBIC은 방글라데시 상수도 정비사업, 송전망 정비사업, 통신네트워크 개선사업에 총 249억 600만 엔의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지원은 4월에 개선된 최빈국 엔차관 지원제도[8]의 첫 번째 지원사례로서 금리는 무이자에 가까운 0.01%, 상환기간은 40년(거치기간 10년)이 적용되었다.

상수도 정비사업에는 122억 2,400만 엔이 지원되며 Chittagong 시의 생활·산업용수 공급 확대를 통해 생활환경 및 투자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Chittagong 시는 상수도시설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이 연못이나 하천의 비위생적인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용수의 부족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완료 후 Chittagong시의 수도보급률은 현재의 48%에서 72%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엔차관 지원액은 정수장·송배수시설 건설 및 컨설팅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며, 컨설팅 서비스에는 재무회계제도의 근대화, 누수대책 부분이 포함되어 기반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사업효과의 지속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전망 정비사업에는 46억 4,200만 엔이 지원되며 변전소 신설 및 기존 변전소 시설 개선, 송전선 증설을 통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각 지역에서는 시간대별 정전 등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수급 불균형의 상황은 주요 산업도시에서 더욱 심각하여 공장가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번 차관 지원으로 충분한 전력공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네트워크 개선사업에는 80억 4,000만 엔이 지원되며 휴대전화·유선전화 및 국제전화 접하여 통신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유선전화 서비스를 위해 전신전화청(BTTB)이 확장회선·시내교환설비·국제교환설비 등의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고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다. 엔차관 지원액은 국제교환기의 증설, 기간전송설비의 확장 및 컨설팅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8) 수은해외경제 2006. 5월호 p.78 참조